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영탁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미래를 모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 없이 절뚝거리는 것과 같다.” 이 말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미래 먼 훗날에 오는 일이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미래나 하는 사람도 있고 온통 과거에 잊어버려 옛날이 좋았느니 어찌나 하면서 뒤만 돌아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재작년에 홍콩을 방문한 웰빈 토플러가 한 말이 새삼 기억난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

미래는 항상 미래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현실로 다가온다. 미래가 현재가 되고 또 과거로 바뀌면서 금방 새로운 미래가 나타난다. 따라서 미래를 잘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이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이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개인, 성공적인 기업 경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기업가, 국가 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미래 공부부터 하고 볼 일이다.

미래변화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나 다방면에 거쳐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구변화나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진전되고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는 무엇인가.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와 방향,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과연 인간이 죽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인가, 온다면

왜 미래인가

언제쯤인가.

교육이 나라의 장래를 결정한다는데 교육 자체의 미래는 어떻게 되며 미래형 인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일자리 변화는 어떻게 되며, 어떤 직종이 부상하고 어떤 직종이 사라지는가. 장차 기업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기업경영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개별 국가 대신에 지구촌 정부가 탄생한다는데 과연 그럴 날이 올까. 미래는 온통 사이버 세상이 된다는데 어떻게 적응해 나갈까. 그때 사람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생활방식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인간의 삶은 결국 행복추구에 최고의 가치를 둘 텐데 미래인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까.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끝이 없다.

요즘 사람들은 저마다 똑똑하다. 인터넷이 집집마다 보급되어 있어 매일 매일 지식과 정보의 흥수 속에서 산다. 거기다가 사람마다 휴대폰을 가지고 그때그때 소통

을 한다. 이처럼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무장한 똑똑한 군중들(smart mobs)의 활동 영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거칠이 없고 정부가 하는 일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 이들이 무리를 이루어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위력이 대단하다.

능력있는 정책 당국자라면 이들을 끌어안고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결국, 이를 동반자로 만들어 함께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미래는 감성사회이다. 냉철한 머리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가슴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사회가 바로 미래 사회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미래는 너무나 복잡하다. 그런데 미래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변화의 내용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남보다 먼저 미래를 파악하고 개척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단순히 예측만 하는 데서 나아가 각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바이다. 그것은 곧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승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하다.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鄭총리 ‘세종시 행보’ 볼썽 사납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26일 광주·전남을 찾았다. 정총리는 이날 광주시내 모처에서 가진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의 현실적인 대안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고 한다. 그는 또 동북아 상품거래소 광주 설립,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검토’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광주·전남의 역점 시책사업인 공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등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역할 분담론으로 본질을 회피했고, 역차별에 따른 대안 제시보다는 ‘세종시에 넘는 땅이 별로 없으니 지역에서 우려하는 블랙홀은 없을 것이다’ ‘세종시 제정적인 혜택 역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등의 우회적 흥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광산업과 LED산업 등이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에서 세종시로 집중투자되면 광주의 미래산업은 몰락할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北 무력도발 단호하고 냉철히 대응해야

북한이 27일 오전과 오후 각각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북한 쪽 해상으로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해 남북 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하루에 두 차례에 걸쳐 잇달아 무력도발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지난해 11월 10일 북한군의 폐배로 끝난 대청해전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청해전 발발 두 달 보름여만이다. 북한은 앞서 25일 이 지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NLL 무력화를 위한 도발을 한 단계씩 실행에 옮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NLL 인근에 포사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도발은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등 NLL 인근 한국 영해도 북한 포 사격권에 들어간다는 무력시위의 성격이 짙다. 일련의 대남 강경조치에 따라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는 게 군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서해안 해안포 발사는 그의 도가 무엇이든 우리 영해에 대한 명백한 침범이자 휴전협정 정신을 위반한 도발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민하면서도 냉철히 대응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군 충돌 모부가 “서해 해상에서 포로한 사격훈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앞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도발에는 단호하고 원칙을 유지하는 대처가 필요한 동시에 정부의 상황 장악 능력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북한은 언제든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겠지만 엄정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그들의 의도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군사적 도발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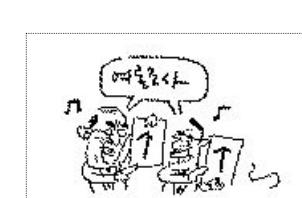
無等鼓

놀이공원에서 청룡열차를 타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의 긴장감을, 속도까지 빨라서 속이 뒤집힌 이들도 술하다.

롤러코스터 타기는 우리네 인생이기도 하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도 호황과 불황은 교차한다. 시험 성적이나 업무성적에 따라 울고 웃는 날도 많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질문 방법이나 순서 등 설문지 상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다고 변명한다. 과연 그럴까. 전문가들은 설문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통 하루 이를 만에 조사를 해치우다 보니, 표본추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춤추는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이들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조사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A여론기관이 조사를 하면 수정안 찬성이 많았고, B여론 기관이 했을 때는 반대가 많이 나와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런 널뛰기는 광주시장 임기자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정치평론가들은 ‘롤러코스터’

/김주정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학원서 불법 다운로드 된 영화 보여줘서야

학원에 다니는 아이가 학원에서 재미난 영화를 보고 왔다고 자랑을 늘어놨다. 그런데 아이들이 본 영화는 지금 상영중인 유명 외국영화였고,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파일을 구입해서 컴퓨터로 보여준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영화나 음악 같은 것을 원작 작자의 허락 없이 불법 다운로드 받고 유통하는 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그런데 학원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받은 파일을 아

이들에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여준 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다. 아이들도 그게 불법으로 다운 받은 것이고 저작권을 위반한 거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지금도 상영중이거나, 상영예정인 국내 영화가 유출돼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불법다운로드는 정말 우리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일입니다. 명심하자.

& 이영애·광주 북구 문홍동

속기쉬운 ‘장뇌삼’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돼야

얼마 전에 유명업체에서 부모님께 드릴 산양삼 두 뿌리를 구입했다. 10년근이라는 말에 한 뿌리에 15만 원씩 주고 샀다. 그런데 그 산양삼을 보시더니 대뜸 인삼이라고 하셨다.

어처피 산양삼을 구별하는 방법은 대부분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인삼의 효능과 성분, 장뇌삼의 효능과 성분, 산삼의 효능과 성분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기

준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해줘야 하지 않을까. 또한, 장뇌삼들은 어디에서 어떤 원료를 가지고 재배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 2년 전에 산양삼 생산 이력제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권고사항이라기보다는 재배농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소비자만 속게 하는 장뇌삼에 대한 적절한 성분과 효능에 대한 기준을 하루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

▲최인준·광주 북구 운정동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www.kwangju.co.kr
대표전화 222-8111~2200-551	기획 2부 2200-692	경영 1부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면 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34	여론조사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5 〈F A X 02-773-9335〉
경 제 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사 회 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
〈F A X 222-4267〉	기획 2부 2200-571	